

연구논문

무엇이 청년의 꿈을 가르는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본인의 역량에 따른 꿈의 내용 차이

정우연* · 조하영** · 김석호***

청년의 꿈은 '표준화'된 생애주기에서 타협될 수밖에 없던 선택지이거나 자본주의적 성공을 위한 무한동력 혹은 모종의 이데올로기로 묘사된다. 이 연구는 청년세대 내의 이질성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의 20~34세 청년들이 갖추고 있는 자원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꿈꾸는 미래의 삶, 즉 꿈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2016년 수집한 '한국청년 가치관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청년이 가진 자원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개인의 역량 자원'으로 유형화하고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꿈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역량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일수록 사회경제적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컸다. 둘째,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청년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수록 내적인 행복을 꿈꾸는 정도가 낮았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은 높지만 자녀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삶이라는 꿈을 내면화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경제적 자원과 역량 자원에 따라 꿈꾸는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청년에게 자원은 특정한 꿈을 꾸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주제어: 청년, 이질성, 꿈, 꿈의 내용, 꿈꾸는 삶, 자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본인의 역량

*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jwooyeon@gmail.com), 제1저자.

**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hayoung.nov@gmail.com), 공저자.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seokhokim@snu.ac.kr), 교신저자.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정치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청년 관련 연구들 또한 주로 청년실업과 불안정 고용, 주거문제를 다루어 왔고(노혜진 2018),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증가하는 실업률과 취업난(문은영·김정숙 2013), 저임금 문제(이태형 2015), 대물림되는 빈곤과 무한경쟁, 사회양극화(이기훈 2012) 문제 등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은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렸으며, 이 상황은 좌절, 불안, 절망, 분노, 무기력 등과 같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나름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려는 시도를 한다(김석호 외 2017). 대표적인 예가 ‘소확행’이다. 소확행이란 ‘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원대한 포부보다는 실현 가능한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경쟁과 부유함을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소확행과 같은 가치관에 집중하는 태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기도 한다(김난도 외 2017). 소박한 취향은 생존주의로 인한 피로감에서 벗어나려 할 때도 나타난다. 생존주의란 극한의 상황에서 커다란 성공을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평범한 행복과 안정을 위해 경쟁상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행위자들은 치열한 경쟁사회에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일환으로 소박함을 지향한다(박주현 2017). 청년은 악화하는 경제적인 조건으로 인한 좌절과 절망적 상황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고유한 방법으로 삶을 구축해 나간다(Kim et al. 2018). 일각에서는 한국의 청년이 주어진 삶의 조건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안위를 추구하기 보다는 무기력과 체념, 절망의 정서를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담론이 청년의 모습을 더 잘 담아낸다고 보기도 한다(권경우 2016). 우리는 동시에 같은 ‘청년’ 문제에 대해 논하지만, 각자 다른 청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청년 담론을 생산하고 그 담론의 지형도를 그리려는 여러 시도가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동질적인 청년의 모습을 상정함으로써 그 내부의 이질성을 간과하고 있다(신광영 2009). 나아가 그러한 이미지를 재생산함으로써 같은 조건 속에서 청년 스스로가 그리는 미래상 역시 같은 내용, 가치관, 방향을 가진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령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가 2021년에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남성과 여성 모두 취업 경쟁에서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더 많다(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2021).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기존 청년 담론이 당연시해 온 경쟁이 치열하고 불공정한 노동시장에 분노하는 청년의 이미지와 상반된다. 사실 청년 중에는 그들 앞에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는 이들도 있고 불공정하다고 분노하는 이들도 있다. 분노하는 청년이라는 설정은 청년 담론에서 당위적으로 만들어진 상징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년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논의하기에 앞서 이들을 과연 동질적인 집단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대라는 개념을 통해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설명하는 경우, 생물학적 현상들과 사회적, 정신적 힘들의 영향이 뒤섞여 집단 내부의 차이를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만하임 2013). 청년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고 일반화하는 담론은 청년 내부의 차이와 이질성을 포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 속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청년’과 같은 고정된 이미지를 설정하기보다는 각기 다른 조건에 놓인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싶은 꿈을 위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청년이 꾸는 꿈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왜 달라질까? 꿈은 성별, 연령,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 등 개인적 특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 지지, 가족관계 등 가족 배경, 사회적 지지,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사회적 관계 등 크게 세 가지에 의해 영향받는다(정익중 외 2017). 그중에서도 가족 배경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이영광·김민수·김민주 2014). 부모의 경제력이나 인맥, 교육 수준은 청년의 꿈을 촉진하기도 억제하기도 한다(Kim et al, 2018). 청년이 원하는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모의 자원과 실제 자신이 갖추고 있는 자원 간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할수록 꿈도 달라지기도 한다(Kim et al. 2018; 김홍중 2015).

이 연구도 청년이 보유한 자원의 유형이나 크기, 그리고 심리적 상태와 믿음에 따라 꿈의 내용 혹은 삶의 목표를 달리 설정할 것이라 가정한다. 청년이 꿈꾸는 삶의 차이는 계급 또는 계층 변수만으로 전부 설명되지 않는다(심경섭·설동훈 2010). 경제 자본에 초점을 둔 기존의 계급론적 시각만으로는 청년이 가진 꿈에 존재하는 다층성, 복합성, 이질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제적 조건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적 역량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Gottfredson 1981) 청년세대의 다각적인 꿈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청년의 꿈과 삶의 목표

꿈은 개인이 가치를 두는 미래에 대한 지향으로, 절대적인 이상향과 자신이 처한 현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늠하여 한 사람이 구성하는 삶의 목표이다. 이 목표는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의 기준이 되며, 자신이 가진 자원, 능력, 지식을 꺼내 쓰도록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자원을 찾도록 동기부여를 하기도 한다(Locke & Latham 2006).

청년의 꿈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으나, 꿈의 유무, 꿈의 실현가능성, 취업이나 내 집 마련 등을 꿈꾸는 정도와 이것들이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연구(김지애 2017), 그리고 청년세대가 지향하는 바를 생존으로 설명하며 생존 과정에서 청년들이 개인의 능력을 가장 중시하는 강박적 능력주의를 갖기도 한다는 연구(김홍중 2015: 187)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처한 상황과 보유한 자원이나 역량에 따라 개인이 설정하는 목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어떤 목표를 갖느냐는 것은 개인적인 이유와 가치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개인이 위치한 사회 구조적 맥락이 단순히 반영된 결과도 아니다. 꿈이 어떤 내용인가는 개인의 삶의 이력과 배경, 가치와 태도,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구조에 대한 복합적인 성찰¹⁾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존연구들은 청년세대가 꾸는 꿈을 추상화하거나 특정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꿈-자본(Kim et al. 2018; 김석호 외 2017)을 ‘낙관성(optimism)’이나 ‘희망(hope)’과 같이 한 사람이 가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혹은 꿈의 성취에 대한 확신으로 정의함으로써 청년이 희망하는 실질적인 미래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의 정체성과 목표를 가족과 경제적인 기준으로 한정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과 출산을 이행해야 하는 존재로만

1) 여기서 ‘성찰’은 인간이 단순히 스스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고 있는 활동과 구조적 조건의 흐름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Giddens 1984: 25-26).

여기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기반을 통해 청년세대의 취업 여부를 설명(한성민 외 2016)하거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활동 여부, 정규직 여부, 근로소득 등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박경숙 외 2005; 김정석 2006; 주휘정·김민석 2018)을 예로 들 수 있다. 또는 청년의 꿈이 다소 “표준화”된 생애 주기에서 ‘포기’되거나 타협될 수밖에 없던 선택지로 묘사되거나, 반대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무한동력으로 분석되는 논의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우석훈·박권일 2007; 김홍중 2015). 그러나 최근 협소하게 정의된 자신들의 정체성, 역할, 그리고 꿈 등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청년이 속출하고 있다(김선기 2017; 김창인 외, 2019). 꿈은 사회경제적 성공과 동일시될 수 없고 보다 포괄적인 개념일 수 있으며,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부종욱 외 2017: 289-290).

즉, 꿈은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배경 중 어느 하나에만 종속되지 않으며, 자신과 환경 간 관계를 두고 이루어지는 성찰을 통해 형성된다. 꿈을 꾸는 과정은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과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선택지 사이에서 그 간극이 최소화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진로와 관련된 목표설정 상황에서 처음 가졌던 폭넓은 수준의 진로와 포부가 점차 현실적 조건들을 수용하는 직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Gorrfredson 1981).

따라서 꿈은 희망과 포부가 현실적 판단에 의해 제한(circumscription)되고 타협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하는 삶의 모습과 다양한 모습들 간 차이를 포착해내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사회·경제 세계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등의 외적 성취와 같은 꿈과 더불어 어떤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지나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내적인 안녕까지 확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신이 가진 자원과 역량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삶의 목표, 즉 꿈꾸는 삶이 차이를 보인다고 가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자 한다.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꿈의 내용

Bourdieu(1997)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교가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문화를 반영한 곳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는 문화자본, 사회자본, 경제자본 등의 개념을 가져와, 세대 전승을 통한 여러 자본 간 상호 강화가 자녀의 미래

전망과 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년이 품는 꿈도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처럼 부모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본의 총량에 의해 결정되고 파생되는 꿈-자본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김홍중 2015; 김석호 외 201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환경은 자녀의 열망 수준과 성취,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Coleman 1990; Erikson & Jonsson 1996; Blau 1999).

최근 고등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높고 교육 성취만으로는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의 성취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김현주·이병훈 2007; 신명호 2010; 김희삼 2014). 개인의 꿈과 성공에 관련된 요인들이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변했다고 해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한 사람의 꿈의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어린 시절의 진로포부는 성인이 된 이후의 직업지위와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Ashby & Schoon 2010), 자녀의 포부수준은 가정환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의 학력 수준에 따라 빈곤 가정 청소년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청소년이 학력이 높은 아버지를 둔 경우에 비해 진로장벽을 더 높게 인식하고 열등감을 더 강하게 느낀다(노경란 2011). 또한 가구소득이 높은 중학생일수록 상위 직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신수경·김경근 2012), 이는 부모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업 등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성공에 대한 자녀의 포부를 발달시키는 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우울과 자살사고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 많다. 스트레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자녀가 그 외의 집단에 비해서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박다혜·장숙량 2013),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자녀가 일상적 수준의 스트레스에는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뿐만 아니라 가치관, 현실 인식, 정신 건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꿈에 대한 확신과 그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개인의 역량과 꿈의 내용

꿈을 꾸는 사회적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키워낸 포부들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계산하고 상상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꿈의 내용과 강도를 관리한다.

개인의 꿈이 자신의 능력, 노력, 타고난 재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심리적 메커니즘 중 하나를 ‘간파(penetration)’라고 한다. ‘간파’는 꿈-자본 차원에서 꿈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의 수준과 실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수준 간의 차이를 인식한 행위자가, 실현 가능성을 꿰뚫어 보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해 만들어내는 사회심리학적 구성물이다(Kim et al. 2018). 간파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은 외부에서 제공한 단서를 유추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해석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판단에 따라 꿈을 설정한다(Kim et al. 2018).

한편 개인의 유능감과 목표감은 생애 과정에서 지속되는 심리욕구로 정의되는데, 둘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유능감이 확장되면 목표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신성만 2017).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통해 어떠한 삶을 꿈꾸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크게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으로 경험되는데, 자기효능감은 목표에 대한 몰입과 지속성을 높인다(Locke & Latham 1990). 자아존중감은 소속감과 성공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 지속적인 실망과 좌절감, 사회적 불안과 비관적 태도를 강화시킨다(Morse & Gergen 1970; Siegrist 2000; 강진영·김매이 2014; 옥주희·김은정 2015). 이처럼 자아경험에 따라 스스로의 역량과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목표를 설정할 때의 태도와 자신감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측정의 측면에서 개인의 역량은 교육수준과 외국어 능력 등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데, 이 역량은 주변 준거집단과의 상대적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자신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더 높고 구체적인 꿈을 꿀 수 있다. 실제로 교육적 성취가 높은 청년일수록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김석호 외 2017),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집단은 중하위권인 집단에 비하여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한다(노경란 2011). 따라서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교육적 성과를 평가하는 한국적 맥락에서는 상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보다 진취적인 삶의 목표를 세울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교육수준과 같은 능력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 판단이 긍정적인 일 경우 자격에 부합하는 수준의 삶을 설계하고자 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 비관적인 경우 자신의 꿈을 설정하는 데 있어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성과나 능력, 역량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특히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내던져진 젊은 세대의 경우엔 일상적 삶에서 능력주의를 긍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강준만 2016: 344).” 따라서 부모의 뒷받침이 꿈으로 귀결 되는 과정에서 자녀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역량과 그에 대한 평가가 꿈의 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꿈에서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역량 간의 관계

위와 같은 논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청년 개인이 생애 과정을 거치며 획득하는 업적성 지위 역시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홍두승·구해근 2001).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청년의 꿈을 단기적 생애 목표 혹은 진로장벽 등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역량이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사회경제적 성공과 개인의 내적인 안녕 추구라는 두 유형의 꿈은 다른 속성을 가지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본인의 역량이란 기제가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이 다를 것이다. 사회경제적 성공이란 꿈은 어떤 능력, 조건, 환경에 의해 구조화되고 획득하는 것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자신의 능력 모두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일수록 사회경제적 성공에 대해 희망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두 가지 자원 모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청년들은 사회경제적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사회경제적 성공과 같은 외적 보상에 대한 열망에 비해 내적인 자기실현에 대한 가치를 추구할 때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Kasser & Ryan 1993). 내재적 가치가 외재적 가치보다 유능감(competence)과 같은 심리적 욕구 충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구재선·서은국 2015: 319).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내면화하는 정도에 따라 개인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효과는 달라진다(Ryan & Deci 2000). 가치에 대한 내면화가 약한 경우 아예 무동기 상태이거나 최소한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에 그치지만, 내면화가 강할수록 죄책감, 걱정, 자부심 등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행위를 통제하거나 규범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정체화 및 통합한다. 특히 내면화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 투사하는 단계(introjection)에서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더 노력하거나, 반대로 실패를 과하게 걱정하고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등 양가적 경

향을 보인다(Ryan & Connell 1989). 이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내적인 가치에 대한 내면화 내지 열망을 더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가치와 행복 추구는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성공처럼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에 따라 희망-포기, 낙관-비관으로 이분화되지 않고 그 관계가 보다 복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신과 배경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청년세대의 꿈을 유형화하고, 개인의 능력과 그 평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상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에서는 2016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세에서 34세의 일반청년 81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국청년 가치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한국과 중국의 일반청년과 예술 관련 전공을 한 창의청년 세대의 비교연구에서 비롯된 자료로, 한국사회의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이에 따른 행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청년 연구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와 현재의 삶, 미래의 꿈과 관련한 문항들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변수 측정방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꿈꾸는 삶과 관련된 문항이다. 미래에 꿈꾸는 삶에 관한 종속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꿈의 내용들과 관련한 유형들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각각의 유형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여기서 꿈의 내용은 (1) ‘나의 꿈은 직업적인 성공이다’, (2) ‘나의 꿈은 유명인이 되는 것이다’, (3) ‘나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4) ‘나의 꿈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다’, (5) ‘나의 꿈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6) ‘나의 꿈은 환경이 좋은 공간에 거주하는 것이다’, (7) ‘나의 꿈은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다’, (8) ‘나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계속하는 것

이다'로 총 여덟 가지이다. (1)~(4)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회경제적인 성공' 변수로 구성하고, (5)~(8) 문항을 통해 '개인의 내적인 행복추구' 변수로 결합하였다.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0.67, 0.84로 일관성을 보임으로써 꿈에 관한 다양한 항목들이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응답범주는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약간 동의', '④ 그저 그렇다', '⑤ 약간 동의하지 않음', '⑥ 동의하지 않음', '⑦ 전혀 동의하지 않음'으로 구간화하여 해당 유형의 꿈을 꾸는 것에 더 강하게 동의할수록 높은 값을 갖도록 조작하였다.

2) 독립변수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제시된 사항에 대해 응답자가 얼마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여기서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인맥', '부모의 교육수준', '좋은 사람을 아는 것', '도전정신', '본인의 노력', '창의적 사고', '시대적 흐름에 잘 적응하는 능력', '본인의 교육수준', '외국어 능력', '본인의 사고성', '해외 생활 경험', '타고난 재능',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응답범주는 '①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② 상당히 갖추고 있다', '③ 대체로 갖추고 있다', '④ 별로 갖추고 있지 않다', '⑤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로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응답할수록 높은 값을 갖는다.

이러한 변수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관계 정도와 방향성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관계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한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요인분석은 세 단계에 걸쳐 진행하였다. 첫째, 자원 관련 변수를 어떤 방법으로 추출하고 몇 개의 요인으로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고, 둘째, 추출된 요인을 어떠한 회전방법을 선택하여 비교적 해석하기 쉬운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최종적으로 도출된 요인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성현곤 2015). 이때 자원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이론이나 가설을 전제하지 않았으므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본인의 역량'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변수를 구성하였다. 따로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Scree Plot 분석을 통해서 보았을 때, 고유값이 '1' 이상인 경우는 두 개의 요인일 때이다. <표 1>은 독립변수인 자원 관련 변수구성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는 의미 있는 요인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요인회전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1> 자원 관련 변수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요인 2	신뢰성 지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경제력		0.7335	0.8138
	부모의 인맥		0.8275	
	부모의 교육수준		0.7471	
본인의 역량	좋은 사람을 아는 것	0.5160		0.8824
	도전정신	0.7925		
	본인의 노력	0.7563		
	창의적 사고	0.7382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는 능력	0.7696		
	본인의 교육수준	0.6038		
	외국어 능력	-		
	본인의 사교성	0.7457		
	해외생활경험	-		
	타고난 재능	0.5907		
<i>N</i>		817		
<i>KMO</i>		0.9003		

사각회전 방식으로 도출해낸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인분석을 실행한 후에 분석결과에 대한 적합도 및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신뢰성 검증에서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타당성 검증에서는 KMO(Kaiser-Meyer-Okin) 통계량을 사용한다. 신뢰성 지수를 나타내는 크론바흐 알파값은 몇 가지 변수를 하나의 척도로 취급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량으로 내부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다. 알파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각각의 변수들은 서로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인맥',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성 계수가 0.8138이므로 세 가지 변수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역량 변수는 '도전정신', '본인의 노력', '창의적 사고', '시대적 흐름에 잘 적응하는 능력', '본인의 교육수준', '본인의 사교성', '타고난 재능'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성 계수는 0.8824로 변수들 간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외국어 능력’과 ‘해외생활 경험’의 경우 요인 적재량이 0.4 미만으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분석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통계량인 KMO는 0.900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규모, 혼인상태, 종교유무, 교육수준, 소득 등이 다. 연령은 해당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빼주어 연속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성별, 거주지역규모, 혼인상태, 종교 유무는 여성과 수도권, 배우자 없음, 종교 있음이 ‘1’의 값을 갖는 가변수로 만들었다. 교육수준은 무학에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의 응답범주로 측정되었으나 이를 중졸, 고졸, 2/3/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에서는 중졸 이하의 응답자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소득수준은 100만 원 미만(1)에서 700만 원~800만 원 미만(10)의 응답범주로 측정되었고 분석에서는 이를 5분위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청년세대가 갖추고 있는 자원에 따라 미래에 꿈꾸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모형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꿈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모형 2에서는 개인의 역량변수를 추가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역량변수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역량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청년세대가 스스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원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어떠한 미래를 꿈꾸는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자원 관련 변수인 독립변수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원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약

2.49점으로 ‘별로 갖추고 있지 않다’와 ‘대체로 갖추고 있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본인의 역량 관련 자원에서의 평균 점수는 3.0점으로 ‘대체로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역량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값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평균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역량이 높은 집단, 평균 이하의 값은 역량이 비교적 낮은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역량이 높은 집단은 전체의 41.86%(342명), 역량이 낮은 집단은 58.14%(475명)이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52.39% (428명), 여성이 47.61%(389명) 조사되었고, 조사 대상의 연령 범위는 20~34세이며 평균 연령은 27.34세이다. 거주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세대는 52.39% (389명)이며,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47.61%(428명)이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청년세대가 20.07%(164명)이고, 배우자가 없는 청년은 79.93%(653명)이다. 종교 유무에 따른 응답자 빈도와 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는 40.86%(333명), 종교가 없는 응답자는 59.14%(482명)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가 0.61%(5명), 고졸은 46.88%(383명), 2/3/4년제 대졸은 49.20% (402명), 대학원 이상은 3.3%(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역량 자원에 따른 사회경제적 성공에 대한 꿈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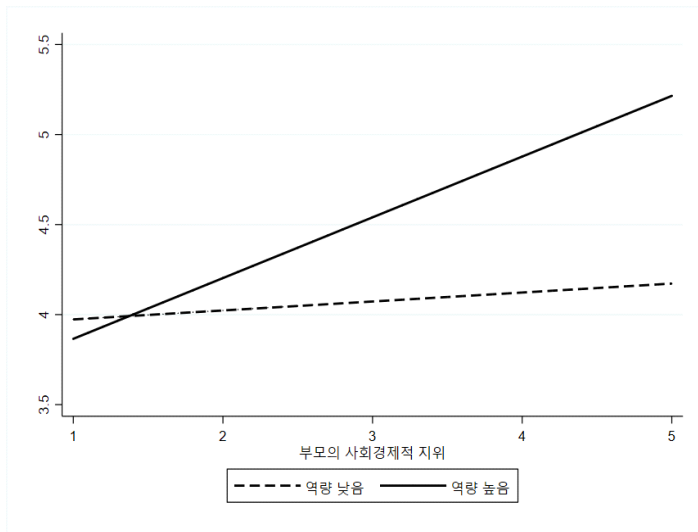
<표 2>는 청년이 꿈꾸는 사회경제적 성공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영향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한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 1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원을 많이 갖추고 있을수록 사회경제적인 성공을 꿈꾸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의 역량을 포함한 모형 2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통제된 상태에서는 개인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성공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역량이 통제된 모형 3에서 청년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해 사회경제적 성공을 꿈꾸는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성공에 대한 열망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경제적 성공을 꿈꾸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년세대가 사회경제적 성공에 대한 열망이 높다.

<표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역량에 따른 꿈의 차이: 사회경제적 성공

		모형 1	모형 2	모형 3
		<i>B</i> (<i>S.E.</i>)	<i>B</i> (<i>S.E.</i>)	<i>B</i> (<i>S.E.</i>)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0.228*** (0.050)	0.189*** (0.051)	0.0498* (0.069)
개인의 역량(<i>ref.</i> 역량이 높은 집단)			0.332*** (0.079)	-0.395* (0.260)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개인역량				0.288** (0.098)
성별(<i>ref.</i> =여성)		0.184* (0.078)	0.192* (0.077)	0.184* (0.076)
연령		-0.010* (0.011)	-0.011* (0.011)	-0.011* (0.011)
거주지역(<i>ref.</i> =수도권)		0.176* (0.077)	0.151* (0.076)	0.148* (0.076)
배우자 유무(<i>ref.</i> =있음)		0.082* (0.109)	0.102* (0.108)	0.104* (0.107)
종교 유무(<i>ref.</i> =있음)		0.127* (0.079)	0.110* (0.078)	0.113* (0.077)
교육수준(<i>ref.</i> =중졸 이하)	고졸	0.110 (0.484)	0.066 (0.479)	0.103 (0.477)
	2/3/4년제 대졸	0.169 (0.484)	0.142 (0.479)	0.178 (0.477)
	대학원 이상	-0.081 (0.522)	-0.166 (0.517)	-0.091 (0.515)
소득수준(<i>ref.</i> =1분위)	2분위	-0.057 (0.131)	-0.116* (0.130)	-0.115* (0.130)
	3분위	-0.044 (0.131)	-0.083 (0.130)	-0.073 (0.130)
	4분위	0.143* (0.121)	0.072 (0.121)	0.083* (0.120)
	5분위	0.089* (0.122)	0.018 (0.122)	0.027 (0.122)
Constant		3.496*** (0.600)	3.594*** (0.594)	3.872*** (0.599)
Observations		815	815	815
R^2		0.056	0.077	0.087
Adj. R^2		0.041	0.061	0.070

*** $p < 0.001$, ** $p < 0.01$, * $p < 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역량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모형 3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원이 청년의 사회경제적 성공에 대한 꿈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 갖추고 있는 자원의 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가 조절변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정보만을 담고 있으므로(헤이즈 2015), 그래프를 통해 특정 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을 살펴보면 개인의 역량이 낮다고 평가한 청년집단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회경제적 성공을 꿈꾸는 데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년일수록 사회경제적 성공을 더 많이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사회경제적 성공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 역량의 상호작용효과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역량에 따른 개인의 내적인 행복추구에 대한 꿈의 차이

<표 3>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의 내적인 행복추구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한 결과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확인한 모형 1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원을 많이 갖추고 있을수록 오히려 개인의 내적인 행복을 꿈꾸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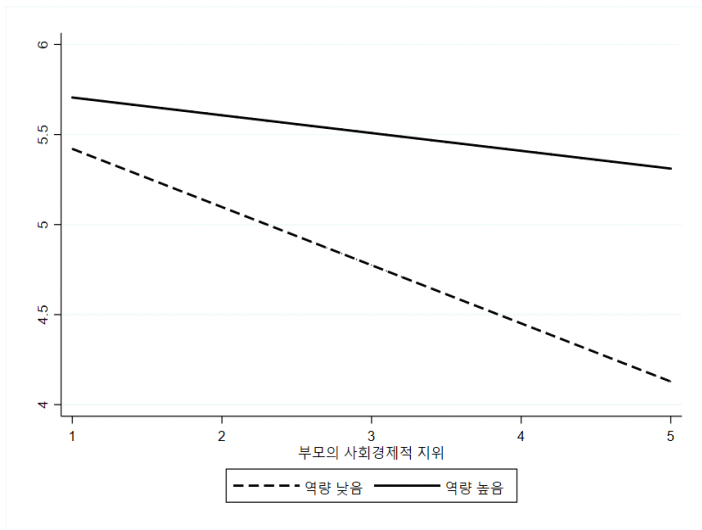
<표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역량에 따른 꿈의 차이: 개인의 내적인 행복추구

		모형 1	모형 2	모형 3
		<i>B</i> (<i>S.E.</i>)	<i>B</i> (<i>S.E.</i>)	<i>B</i> (<i>S.E.</i>)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0.141** (0.052)	-0.214*** (0.051)	-0.323*** (0.070)
개인의 역량(<i>ref.</i> 역량이 높은 집단)			0.628*** (0.079)	0.061 (0.261)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개인역량				0.224* (0.099)
성별(<i>ref.</i> =여성)		0.380*** (0.080)	0.397*** (0.077)	0.390*** (0.077)
연령		-0.004 (0.012)	-0.007 (0.011)	-0.006 (0.011)
거주지역(<i>ref.</i> =수도권)		-0.071* (0.080)	-0.12* (0.077)	-0.120* (0.077)
배우자 유무(<i>ref.</i> =있음)		-0.025 (0.112)	0.012 (0.108)	0.014 (0.108)
종교 유무(<i>ref.</i> =있음)		0.127* (0.081)	0.096* (0.078)	0.098* (0.078)
교육수준(<i>ref.</i> =중졸 이하)	고졸	0.845* (0.500)	0.763* (0.482)	0.791* (0.480)
	2/3/4년제 대졸	0.995* (0.500)	0.943* (0.481)	0.971* (0.480)
	대학원 이상	0.759* (0.539)	0.598* (0.519)	0.656* (0.519)
소득수준(<i>ref.</i> =1분위)	2분위	0.197* (0.135)	0.085 (0.131)	0.086 (0.131)
	3분위	0.252* (0.136)	0.180* (0.131)	0.187* (0.131)
	4분위	0.399** (0.125)	0.264* (0.121)	0.273* (0.121)
	5분위	0.459*** (0.126)	0.323** (0.123)	0.330** (0.122)
Constant		4.276*** (0.619)	4.460*** (0.597)	4.678*** (0.603)
Observations		815	815	815
R^2		0.077	0.145	0.150
$Adj. R^2$		0.062	0.130	0.135

*** $p < 0.001$, ** $p < 0.01$, * $p < 0.05$.

이러한 효과는 개인의 역량이 포함된 모형 2에서도 유지되었다. 가족 배경과 경제적인 관점으로 설명되는 청년 개인의 목표와 꿈은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에서 정적인 양상을 띤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주로 좋은 일자리나, 높은 소득을 설명하는 데 국한되어 있어 개인의 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특수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이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개인의 내적인 행복추구의 변화 패턴을 보다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개인 역량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형 3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역량을 통제된 상태에서 청년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내적인 행복추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 때 개인의 내재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년세대가 개인의 내적인 행복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개인의 내적인 행복추구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 역량의 상호작용효과

모형 3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 역량 간의 상호작용을 효과를 보여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 역량 간에 유의한 수준에서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내적인 행복추구에 미치는 영향은 청년의 역량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상호작용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2>이다. 자신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전

반적으로 개인의 내적인 행복을 더 많이 꿈꾸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원의 양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개인의 역량을 낮게 평가한 집단은 오히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원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수록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도가 낮아졌다. 반면, 개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청년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정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한국 사회의 청년 관련 담론장에서 청년의 꿈은 주로 진로나 취업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영역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성공적으로 사회, 경제 세계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의든 타의든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꿈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것이 청년들의 유일한 꿈은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외적인 가치 추구에 대한 꿈을 살펴보는 동시에 개인의 내적인 행복을 꿈꾸는 데 있어 소유한 자원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인맥, 부모의 교육수준과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원을 많이 갖추고 있는 청년일수록 직업적·경제적 성공에 대한 열망이 높다. 또한, 이러한 열망은 본인의 노력, 본인의 교육수준, 창의적 사고, 도전 정신 등 개인의 역량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원과 더불어 개인적인 역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추고 있는 청년일수록 사회경제적인 성공을 더 많이 꿈꾸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한 청년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더라도 사회경제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지 않았다. 이는 청년세대가 사회경제적인 성공을 꿈꿀 때 자신이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공부를 계속하거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여가를 즐기는 등 청년세대가 개인의 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특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내적인 가치와 행복 추구 간의 관계는 청년 자신이 갖춘 역량에 대한 자신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자신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청년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오히려

내적인 행복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즉,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집단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개인의 내적인 행복을 추구할 가능성이 낮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은 높지만 자녀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자녀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반경하·서현아 2009).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아낌없는 지원과 높은 기대는 자녀로 하여금 성취에 대한 압력, 즉 사회경제적 성공에 대한 가치 규범의 내면화를 강화시킨다(김영혜·안현의 2014). 부모의 지원과 개인 역량 간의 극이 클수록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데 있어 청년세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낮고 자신감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또한, 능력중심주의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능력에 비례하는 보상과 사회적 위치를 점하는 등 외재적인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청년의 특징을 상기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청년집단에서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자원을 제공하는 부모가 자신에게 부여한 사회경제적인 성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개인 수준의 행복 추구는 부차적인 꿈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연구결과는 청년의 꿈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조각되거나 개인의 열망과 의지에 의해서만 구성되지 않으며, 보다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꿈이 사회경제적 조건과 심리적 역량과 맺는 관계는 어떤 유형의 꿈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청년 개인의 꿈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생애과정에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수정되고 재구성된다.

이 연구는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인맥으로 구성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는 스스로 그 자원들을 얼마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된 변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대상이 20~34세로 1인 가구의 경우 자신의 월 평균소득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20대 초·중반의 청년세대의 경우 자신의 소득을 제외하고 부모의 소득만을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 측정도구의 정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청년세대가 실제로 어떤 자원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로 살펴보는 못했

다.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꿈의 차이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추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준만. 2016. “왜 부모를 잘 둔 것도 능력이 되었나?: ‘능력주의 커뮤니케이션’의 심리적 기제.” 《사회과학연구》 55(2): 319-355.
- 강진영·김매이. 2014.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긍정적 착각,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3(5): 353-364.
- 구재선·서은국. 2015. “청소년의 내재적 가치 지향과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미래 행복의 관계 구조 분석.” 《청소년학연구》 22(10): 317-338.
- 권경우. 2016. “한국 청년세대 담론의 지형도.” 《교양학연구》 3: 7-44.
- 김경미·류승아·최인철. 2014. “행복과 학업성취: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329-346.
- 김난도. 2017. 트렌드 코리아 2018: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2018 전망.
- 김석호·김고은·배영·한수진. 2015. “외국인 근로자의 인터넷 이용 특성별 이직.” 《한국인구학》 38(1): 105-124.
- 김석호·주윤정·성연주·김지애·김은지·이상규·김홍중. 2017. “한국 청년세대의 꿈-자본 측정.” 《문화와사회》 24: 289-331.
- 김선기. 2017. “청년-하기를 이론화하기: 세대 수행성과 세대연구의 재구성.” 《문화와 사회》 25: 161-210.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지애. 2017. “청년의 포기의 다양성에 대한 탐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혜·안현의. 2014. “대학생의 부모-자녀 유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결정관계에서 성취압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657-682.
- 김창인·전병찬·안태연. 2019. 《청년현재사》. 시대의 창.
- 김현주·이병훈. 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125-148.
- 김홍중. 2015.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경제와사회》 108: 32-72.
- 노경란. 2011. “빈곤 가정 청소년의 가정적,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인식 특성이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빈곤 가정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영역에

- 서의 지원 활성화 관점.” 《교육연구논총》 32(2): 81-105.
- 노혜진. 2018.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38(2): 71-102.
- 만하임(Mannheim, K.). 2013. 이남석(역) 《세대문제》. 책세상문고.
- 문은영·김정숙. 2013. “서울시 2030세대 일-생활 실태 및 정책지원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256.
-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요인: 계층혼, 성역할 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 박다혜·장숙량. 2013.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집》. 14(6): 2667-2676.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 박주현. 2017. “소박함의 열망: 키포크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4: 121-181.
- 반정하·서현아. 2009.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취 기대에 따른 조기영어교육 인식 및 실태 연구.” 《인문학논총》 14(1): 121-148.
- 부르디외(Bourdieu, Pierre). 2006. 최종철(역) 《구별짓기》. 새물결.
- 부종욱·이상엽·이휘웅. 2017. “청년세대의 꿈: 다시 꿈을 꿈꾸기.”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87-300.
- 성현곤. 2015. 《Stata를 활용한 통계이론 및 실습》. 충북대학교출판부.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81: 35-60.
- 신명호. 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2): 217-246.
- 신성만. 2017. “중독행동의 이해를 위한 동기균형이론.” 《한국심리학회지: 중독》 2(1): 1-12.
- 심경섭·설동훈. 2010.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직업 포부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3(2): 33-59.
- 옥주희·김은정. 2015. “부정적 자기개념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5(3): 619-637.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 원 세대: 절망의 세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서울: 레디앙 미디어.
- 유홍준·김기현·신인철·오병돈. 2013. “청소년의 직업포부와 희망직업: 대학전공 선택과의 관련성 분석.” 《직업교육연구》 32(6): 91-110.
- 이기훈. 2012. “청년: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문화과학》 69: 139-147.
- 이영광·김민수·김민주. 2014.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변화·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사회과학연구》 33(2): 157-179.
- 이태형. 2015.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월간복지동향》 196: 12-16.

- 전상진.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 사회학》 38(5): 31-52.
- 정익중·박재연·박희숙·오은찬·홍성욱·변지영·박새롬·김재환·조운호. 2017. 《2017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보고서》. 동그라미재단·월드비전.
- 주취정·김민석. 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2): 59-88.
- 한성민·문상호·이숙중. 2016. “청년취업 결정요인에서 본 청년 취업대책 개선책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2): 187-212.
- 홍두승·구해근. 2001. 《사회계층·계급론》. 다산출판사.
- Ashby, J.S. and I. Schoon. 2010. “Career Success: The Role of Teenage Career Aspirations, Ambition Value and Gender in Predicting Adult Social Status and Earning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3): 350-360.
- Bandura, A. 1985. “Model of Causality in Social Learning Theory.” in *Cognition and Psychotherapy* (pp. 81-99). Springer, Boston, MA.
- Christopher J.R. Roney and D.R. Lehman. 2008. “Self-Regulation in Goal Striving: Individual Differences and Situational Moderators of the Goal-Framing/Performance Link”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11): 2691-2709.
- Coleman, J.S. 1990. *Equality and Achievement in Educa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Deci, E.L. and R.M. Ryan.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Erikson, R. and J.O. Jonsson(eds.). 1996. *Can Education Be Equalized?: The Swedish Case in Comparative Perspectiv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Giddens, Anthony.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 Gottfredson, L.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Kasser, T. and R.M. Ryan.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410-422.
- Kasser, T. and R.M. Ryan.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 Kim, H.J. and B.H. Lee. 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

- 자본의 영향.”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0(1): 125-148.
- Kim, U. and S.H. Choi. 201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227-258.
- Kim, S., H. Kim, S. Lee, E. Kim, and O. Gowen. 2018. “Lack of Dream-Capital among Korean Youths: Rationally Chosen or Culturally Forbidden?” *Development and Society* 47(3): 347-370.
- Locke, E.A. and G.P. Latham. 1988. “The Determinants of Goal Commitmen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 23-39.
- Locke, E.A. and G.P. Latham. 1990. *A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ocke, E.A. and G.P. Latham. 2002. “Building a Practical Useful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Motivation.” *American Psychologist* 57: 705-717.
- Locke, E. and G. Latham. 2006. “New Directions in Goal-Setting Theor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5): 265-268.
- Morse, Stan and Kenneth J. Gergen. 1970. “Social Comparison, Self-consistency, and the Concept of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1): 148-456.
- Siegrist, J. and M. Marmot. 2004. “Health Inequalities and the Psychosocial Environment—two Scientific Challenges.” *Social Science & Medicine* 58(8): 1463-1473.
- Ryan, R.M. and J.P. Connell.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Ryan, R.M. and E.L. Deci.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접수 2022.02.22; 수정 2022.02.22; 게재확정 2022.02.26>

What Determines the Dreams of Young Adults: Different Contents of Dreams Depend on Young Adults'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Their Own Capability

Woo-yeon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ayoung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kh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reams of Korean younger generation were often described as an option that had to be compromised in a 'standardized' life cycle, as an infinite driving force for capitalist success, or as some kind of ideology. Focusing on the heterogeneity within the youth gener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dreams of Korean young adults from age 20 to 34 differ according to the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ey possess in the society.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the 'Survey on Korean Youth Values' collected in 2016 by Seoul National University's Asian Research Institute.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resources were categorized into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personal capability',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both on the content of dreams was examined. As a result, first, the young adults who answered that their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relatively high and they have more personal capabilities had higher aspirations for socioeconomic success. Second, among the young adults with relatively low capability, their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showed negative relations to their degree of dreaming of inner happiness. This suggests that the greater the gap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personal capabilities, the more likely young people are to take a passive attitude in pursuing personal well-being.

Key words: young adults, heterogeneity, dream, contents of dream, dreaming life, life goal, resources,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personal capabilities